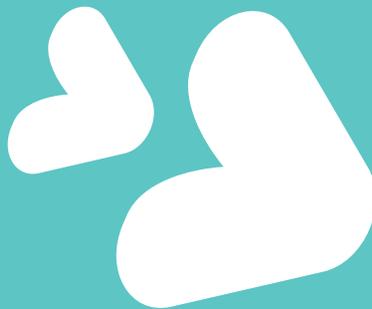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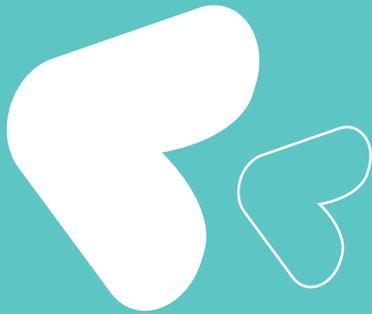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4



전라남도 신안 흑산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K-관광섬)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홍어, 섬 풍경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신들의 정원 - 흑산도 진리 당제

07 흑산 홍어잡이어업, 바닷바람에 맛이 들린 건정으로 거듭나다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운영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흑산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책으로 만나는 어촌 속담『漁村俗談集』(1980년)

09 바다생물 인문학: 홍어(洪魚)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흑산도 예리 섬 활동가 이영일 님

12 흑산도 예리 주민 박호 님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4 흑산도 투어 가이드

16 흑산도 섬 여행 명소

18 <특집 코너> 2024 흑산면민의 날&홍어축제 풍경 이모저모



NEWS & ISSUE :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2 이달의 주요 섬뉴스

섬 단어사전

산다이

#신안군 #흑산도 #산다이 #섬문화유산

#산다이는 서남해 섬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연행된 유희 문화이자 이벤트 요소가 가미된 종합 예술문화이다. 청춘 남녀가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음식을 먹고 노는 것에 서부터 명절이나 초상과 같은 대소사는 물론 휴식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가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섬문화유산이다.

산다이에 참여하는 계층은 마을의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기층민들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참여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고 있다. 산다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요인은 주로 상황, 장소, 참여자 등이 있는데, 명절에 이뤄지는 산다이, 초상을 치른 날 이뤄지는 산다이, 파시에서의 유희 산다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특수한 사례로 산에 벌목 가서 벌이는 산다이, 어린이들의 산놀이 산다이 등이 있다.

전남지역 가운데 #신안군 섬 곳곳에서도 산다이 문화를 통해 우애를 다지고 주민 간 유희를 함께 나누는 풍습이 계속됐는데, #흑산도를 비롯한 먼바다 섬 지역에서는 짝지로 불리는 몽돌, 자갈 해변이 주요한 무대로 활용되곤 하였다. 자유롭게 노래와 춤을 곁들여 흥을 돋우는 산다이는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 참여자 간 약속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움 속 즐거움을 추구하는 점에서 순수 예술이자 섬 축제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움 주신 분 신안군 흑산면사무소

흑산도 예리 섬 활동가 이영일 님

흑산도 예리 주민 박호 님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 - 어업1』, 2021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전라남도,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 1980

정약전, 『자산어보(茲山魚譜)』, 1814

서유구, 『전어지(佃漁誌)』, 1820

나승만, 『산다이 청춘들의 노래와 연애생활사』, 민속원, 2016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섬 당제의 흔적을 찾아서』, 202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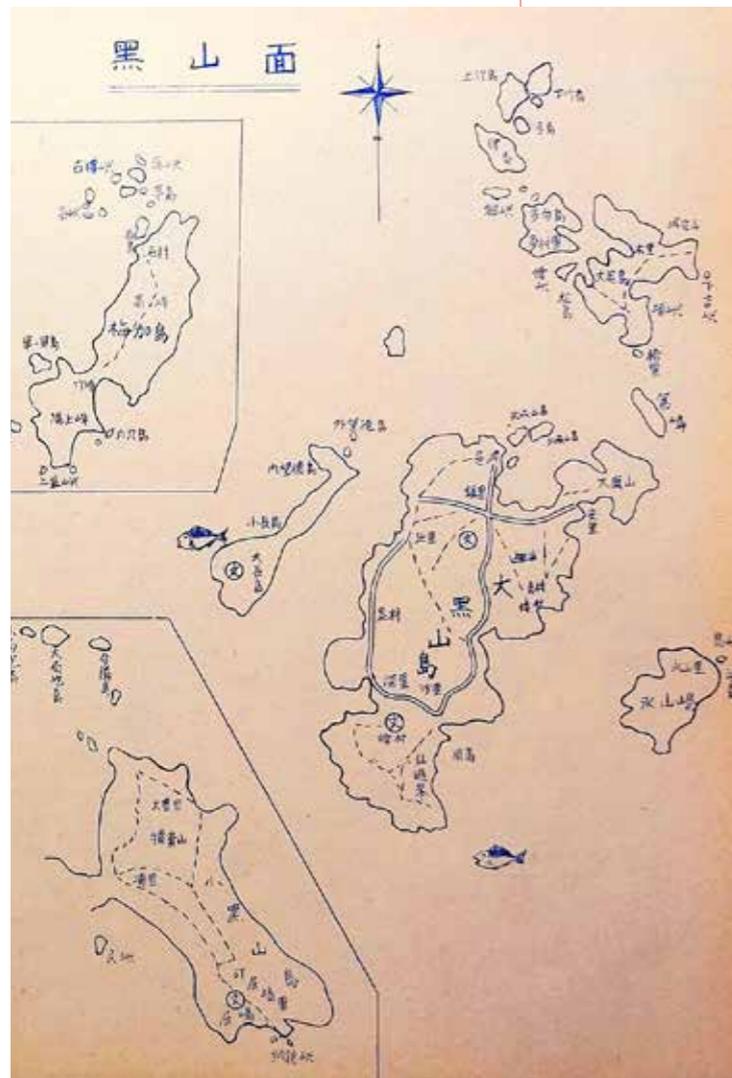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무안군 흑산면 흑산도

▶ 호남약도(湖南略圖) 무안군 흑산면 흑산도(1965년)



흑산면(黑山面)은 1969년 새롭게 창군한 신안군에 편입되기 전 무안군에 속했다. 행정구역상 큰 섬인 흑산도에 면사무소가 소재하며, 진리와예리, 비리, 심리, 사리 등 5개 리(里)와 더불어 장도와영산도, 대둔도, 홍도, 태도, 만재도, 가거도 등 작은섬이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1973년 내무부에서 발간한 『도서지(島嶼誌)』에 기록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인구가 2,320가구, 12,845명에 달했다.

옆의 『호남약도(湖南略圖)』에 소개된 지도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섬과 여(바위)를 비롯하여 산지와 평지, 마을, 학교 등 다양한 지리·행정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다만 제작 시기가 신안군 창군 전이어서 만재도와 태도는 제외되어 있다. 홍도나 가거도의 경우 흑산도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경계를 나누어 그려졌다. 이를 통해 흑산면이 얼마나 넓은 섬·해양 공간을 포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신안지역 가운데 먼바다 섬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면(島嶼面)으로서 섬 곳곳에 어장이 분포한 점도 발견된다.

재! 그럼, 풍부한 맛과 멋, 문화가 살아 숨쉬는 흑산군도로 떠나보자.



푸른 바다에 던져 걸어서 낚았다 흑산 홍어

매서운 바람결에 검푸른 바다. 이윽고 봄을 만나 맑아졌다. 미끼를 쓰지 않은 낚싯바늘을 코발트 빛 바다 저 아래 내던지곤 기다림으로 마음 채우던 어부. 그는 팽팽해진 낚싯줄 너머에 꿈과 희망을 한 아름 껴어놓았다. 전통 어법, '걸낙'. 그렇게 신선해진 흑산 홍어는 거듭 태어나 어부에게 안겼다.

- # 신안군
- # 흑산면
- # 흑산도
- # 홍어
- # 특산물
- # 국가중요어업유산



▶ 신안군 수협 흑산지점 홍어 위탁 판매



▶ 예리경로당 앞 그려진 흑산 고래 벽화, 그리고 소박한 정원



▶ 흑산도 진리에 이르르면 팽나무 한 쌍



▶ 신들의 정원 흑산도 진리 당숲의 신비로운 식물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신들의 정원 **흑산도 진리 당숲** ①

흑산도 진리 당숲은 비교적 최근까지 당제(堂祭)가 거행된 신성한 제의 공간으로, 섬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지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종교가 유입되면서 주민 의식 변화로 중단됐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 제의가 진행되었고 제사를 모실 제관(祭官)은 마을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제주는 대·소변을 보고 나서 찬물로 목욕해야 했고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의 과정이 간소화되기에 이르렀고, 제관에게는 수고비가 지급되는 형태로 제의가 유지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당제는 흑산도와 주변 섬을 포함하여 15개의 당산이 존재했다.

당숲에는 돌담으로 에워싸인 두 칸의 당집과 성주신을 모신 공간, 그리고 해안에 접한 곳에 조성된 용왕당이 있다. 예전의 진리 당집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신을 그린 화상(畵像)이 진열되어 있었다. 정월 초하룻날이 지난 이튿날이면 마을 주

민들이 몰려와 마을 대표들이 당문(堂門) 열기를 기다려 그림을 구경하곤 했다. 주민마다 증언이 다르지만, 당도령과 당각시, 당영감, 산중처사, 상궁부인 등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고, 개·보수 사업을 지속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숲에는 아름다운 소나무를 비롯하여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초령목'이 있다. 초령목은 목련과 초령목속에 속한 희귀수종으로 당숲에 300년 넘은 나무 한 그루를 포함하여 40여 그루의 어린 초령목이 자생하고 있다. 이밖에 당숲에는 홍송, 해송, 동백, 후박나무, 담팔수, 서어나무, 시누대, 등글레와 더불어 바랭이, 강아지풀, 염초 등이 자란다. 당집이 있는 곳에서 용왕당에 이르기까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흑산 **홍어잡이어업** ②

바닷바람에 맛이 들린 건정으로 거듭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활용한 자연 건조 방식으로 생산하는 건정은 섬·어촌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홍어는 영혼이 담긴 음식으로 돌잔치나 제사상 등 집안 대·소사는 물론 마을 잔치와 같은 공동체 행사에서도 빠짐이 없다. 지역민들이 홍어 요리를 대하며 발전시킨 독특한 식문화로 묵은김치와 돼지 수육을 곁들인 '홍어삼합'과 막걸리와 함께 먹는 '홍탁'이 있다. 이는 특 소는 향과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홍어가 식자재로서 전국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공헌한 콘텐츠로 기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역사성을 지닌 '흑산홍어'는 흑산면은 물론 신안군을 대표하는 수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흑산도에서 홍어잡이에 나서는 몇몇 어가는 전통 조업방식인 걸낙 어법으로 매년 300t가량의 홍어를 잡는다. 이 어법은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7자 모양으로 생긴 미끼 없는 바늘을 단 낚싯줄을 깔아 두는데, 바늘에 홍어가 걸리면 자연스레 피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살과 내장이 깨끗해지면서 그 맛이나 식감이 좋아진다. 여기에는 다년간 어민들이 조업을 통해 체득한 경험지식이 한몫했다. 그 결과 전통 어법을 통한 '흑산 홍어잡이어업'이 2021년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됐다.

'신안 건정'은 천일염으로 간하여 염장 처리를 마친 생선이라는 뜻을 지닌 '간장'에서 유래했다. 특히 신안 지역에서는 홍어를 비롯하여 연·근해 어장에서 나는 생선을 바닷바람에 말려 포나 찜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른바 해풍 건정으로 불린다. 갓 잡은 생선들을 민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빨랫줄에 집개로 고정,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에서 이듬해 봄 사이 건조 과정을 통해 비로소 건정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증도나 압해도와 같은 연해 섬·어촌 지역에서는 민어나 송어 등이 주요 대상 어종이며, 흑산도에는 홍어나 우럭이 해당된다.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③



흑산 홍어잡이어업이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섬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과 더불어 수산물 판로 개척 사업 등을 위해 '흑산홍어썰기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2020년 5월경 시작됐다. 섬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명절 또는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홍어를 손질하는 인력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첫 입학·수료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제안 사항이 언급되면서 수료생과 자격 취득 대상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이 이뤄졌다.

흑산홍어썰기 민간자격증은 신안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무렵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흑산홍어썰기 기술자" 자격증 등록을 마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자격증 부여를 위한 교육 과정은 초급에서 중급, 고급, 장인 등 체계화된 등급 구분에 따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자격시험은 홍어를 한정된 시간 안에 손질·해체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홍어썰기학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응시 자격을 가지며, 홍어 손질과 썰기, 포장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소화, 이후 자격 취득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 부여된다. 해당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2명의 수료생 가운데 30명이 '흑산홍어썰기 기술자' 초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흑산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바다생물 인문학 홍어(洪魚)

홍어는 몸이 마름모꼴로, 너비가 매우 넓다. 머리는 작고 주둥이는 돌출하였으며, 눈은 작고 분수공은 크다. 등의 중앙선에는 작은 가시가 있다. 몸빛은 등은 갈색, 배는 백색이거나 회색이다. 가슴지느러미의 기저(基底)에는 검은 테를 두른 큰 반문(斑文: 얼룩얼룩한 무늬)이 있으며, 몸길이가 150cm 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 연해와 남일본 연해·동중국해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목포·영광·인천 등지의 연해에 특히 많다. 20~80m의 깊은 곳에 산다. 난생이며 봄에 산란한다.

『경상도지리지』에는 울산군의 토산공물로 실려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토산조에는 '홍어(洪魚)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홍어를 어획하여 이용한 역사가 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산란기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며, 11~12월에 가장 성하다. 한번에 4~5개의 알을 낳으며, 알은 단단한 껍질에 싸여 있다. 수명은 5~6년 정도이다. 오징어류, 새우류, 게류, 갯가재류 등을 주로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톱 쏘는 맛이 나도록 삭혀서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홍탁(洪濁)이 가장 유명하며, 전남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잔치 음식에 삭힌 홍어가 거의 빠지지 않는다. 이른 봄에 나는 보리싹과 홍어 내장을 넣어 '홍어애국'을 끓이기도 하며, 회, 구이, 찜, 포 등으로 먹기도 한다.

역사 속 고문헌 자료에서 홍어에 관한 기록이 다수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18, 19세기 무렵 손암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玆山魚譜)』와 풍석 서유구가 쓴 『전어지(佃漁誌)』가 있다.

"큰 놈은 넓이가 6, 7자 안팎으로 암놈은 크고 수놈은 작다. 모양은 연잎(荷葉)과 같고 빛은 검붉고, 코는 머리 부분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기부(基部)는 크고 끝이 뾰족하다. 입은 코 밑

에 있고 머리와 배 사이에 일자형(一字形)의 입이 있다. 등 뒤에 코가 있으며 코 뒤에 눈이 있다. 꼬리는 돼지 꼬리와 같고, 꼬리 중심부에 모지고 거친 가시가 있다.

홍어는 회나 구이, 국, 포 등에 모두 적합하며, 나주(羅州)와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썩힌 홍어를 즐겨 먹는데, 지방에 따라 기호(嗜好)가 다르다. 배에 복결병(腹結病)이 있는 사람은 썩은 홍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더러운 것이 제거된다. 이 국은 또 주기(酒氣)를 없애주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뱀은 홍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비린 물을 버린 곳에는 뱀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대체로 뱀에 물린 데에는 홍어의 껍질을 붙이면 잘 낫는다."

『자산어보』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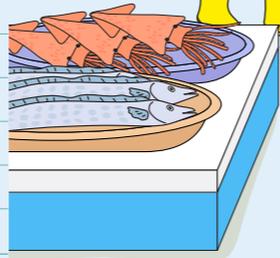
18세기 풍석 서유구가 쓴 『전어지(佃漁誌)』에서도 홍어에 관한 언급이 이뤄졌는데, '무렵생선'으로 불렸으며, 생김 모양과 빛깔이 모두 해요어(海鰐魚)와 같고 꼬리는 자못 납작하고 넓다고 언급됐다. 매년 3월 어가에서 잡는데, 고깃살은 허물허물하고 연하며 뼈와 가시가 없고, 국을 끓이거나 고우거나 굽는데,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전어지』중에서



바다	해산물	월
	우럭	1월 - 12월
	홍합	1월 - 12월
	전복	5월 - 10월
	해삼	5월 - 6월
	다시마	6월
	돌미역	7월
홍어	1월 - 5월 8월 - 12월	

밭	밭작물	월
	대파	2월 - 5월
	상추	3월 - 6월
	수수	4월 - 9월
	콩	6월 - 7월
	고구마	6월 - 10월
	조	6월 - 10월
배추	11월 - 4월	



책으로 만나는 어촌 속담집 『漁村俗談集』(1980년)

연등(燃燈) 살에 홍어 코 벗겨진다

● 통용 지역 신안 / 수집자 : 신안군 흑산면 유성수

● 과학적 타당성

'연등*'은 음력 2월을 달리 일컫는 말이며, '살'은 사리의 줄임말로 보름과 그믐날에 조수(潮水)가 밀려오는 시각을 말한다. 예전부터 1년 중 연등사리 때 조류가 가장 급하다고 말한다. 홍어는 그 형태가 마름모 꼴로 폭이 넓으며, 사질(砂質)이 섞인 빨밭에서 서식하는 저서류이므로 연등사리와 같은 때에도 움직임 없이 서식지를 떠나지 않고 산다.

● 현대적 풀이

연등사리 물살이 아주 강하여 빨밭에 밀착해 사는 홍어 콧등까지도 벗겨진다는 말이다. 이 시기가 되면 소형 어선이나 채취선 등은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해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연등 : 다른 지역에서는 '영등'으로도 불린다. 특히 매년 음력 2월 그믐에서 3월 보름 사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영등사리에 이르러면 진도군 고군면 화동마을과 의신면 모도(茅島) 사이에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신비의 바닷길'로도 불리며 진도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어촌속담집 표지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1. 흑산도에서 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996년 무렵 흑산도에 있는 내연발전소에 입사해서 근 30여 년간 근무하고 있다. 20대에 입사했으니 청춘 시절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처음 몇 년간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부단히 애썼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거듭하다 보니 업무에 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무는 주·야간 교대로 선다. 내연발전소는 1년 365일 내내 쉼 없이 가동되어야 하니까 직원 간 교대근무와 퇴근 후 휴식 시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긴장 유지가 필요하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난 툴툴이 수면 시간을 쪼개어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조류 탐조나 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런 연유로 흑산도 지역 주민이자 섬 활동가, 조류 연구 탐조 활동가 등으로 불리어 왔다.

Q2. 평소 흑산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어떤 형태로 찾는지?

예전부터 흑산도나 홍도를 여행하려는 여행객 중 상당수는 여행사를 통해서 온다. 1박 2일 여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사에서는 숙박업소를 어디에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크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놓고 보면 흑산도보다 홍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일차적으로 홍도에 비중을 둔 코스 기획이 우선시 된다. 그 결과 여행객은 먼저 홍도에서 하룻밤을 묵은 이튿날 쾌속선으로 흑산도를 경유해서 목포로 향하는 코스를 선호하게 됐다. 흑산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나절 정도인데 아직까지 해안일주도로를 타고 섬 명소를 돌아보는 버스 관광을 즐기는 정도다.

이미 짜인 일정대로 명소 순회 방문이 이뤄지다 보니 여행자 개개인을 위한 체류 시간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심리(深里)나 사리(沙里)를 비롯한 섬마을 곳곳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 마을 문화유산이 분포하지만, 체류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여행자들이 단순히 어느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수준을 넘어 주민 생활상을 살펴거나 느낌을 담아가갈 수 있도록 명소별 체류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또 여행객이 편리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섬 여행자 안내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섬을 찾는 여행 주체가 어느 쪽인가에 따라 연령층도 나뉘는데, 먼저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객의 경우 5, 60대, 개인 여행객은 3, 4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간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라는 여행 홍보 슬로건을 강조하던 데서 벗어나 섬이 지닌 고유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여행 문화 정착과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Q3. 흑산도에서 조류 탐조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지?

성장하면서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졌는데, 1999년 우연찮은 기회로 디지털카메라를 손에 쥐게 됐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똑딱이 카메라'조차 귀했고, 목포와 같은 육지 도시에서도 디지털 사진 동호회가 생겨나기 전이었다. 다행히 서울 지역을 중심에 둔 사진 동호회가 있어 섬과 육지를 왕래하며 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또 이 시기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무렵이기도 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을 계속 업데이트하니 섬에 관한 관심과 호응이 늘어났다. 섬에서 지내며 바깥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뻐다. 그러던 어느 날, 흑산도 진리 해변에 평소 보이지 않던 새가 출현했다. 기존에 쓰던 일반 카메라 대신 줌 기능이 있는 기종으로 바꿔 쓰던 시기였다. 사진을 찍고 나서 무슨 새인지 찾아보니 부리가 독특한 '노랑부리저어새'였다. 지금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에서 근무하는 고경남 과장님에게 문의하니 깜짝 놀라시며 조류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망원렌즈를 주셨다. 이 덕분에 조류에 관한 관심을 늘릴 수 있게 됐다.

Q4. 조류 탐조 활동에 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여름철에만 섬을 찾는 새로 꼬리가 긴 특징을 가진 '긴꼬리딱새'이다. 유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어렵풋이 난다. 아버지는 그 새를 가리켜 '몽물새'라고 불렀는데, 긴 꼬리를 싹뚝에 넣어두면 싹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셨다. 동물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물총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 모습도 인상 깊다. 지난 4년간 흑산도에서 지내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했는데, 그중 조류 탐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걸어 다녀야 하니 귀찮아하는 눈치였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4년째에 이르던 지난해에는 6학년 학생 중 한 친구가 조류에 관한 관심을 늘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저 혼자 조류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디선가 새가 울면 그 소리만 듣고도 알아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Q5. 앞으로 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는지?

20여 년간 조류 탐조와 함께 '자산어보(玆山魚譜)'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활동에 매진해 왔다. 흑산 바다에서 나는 생물 가운데 물고기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매일 눈과 귀를 열고 들으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한다.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나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여 년 전 한양에서 손암 정악선 선생이 『자산어보(玆山魚譜)』라는 책을 남겨서 우리가 큰 도움을 얻고 있지 않은가? 생태 환경에 따라서 바다생물도 그 개체 수나 종류가 달라지니 현 세태를 반영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여지껏 흑산도와 신안 섬을 비중있게 다뤄오면서 관광, 생태, 생물 등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분야지만, 결국 한 묶음으로 이어지는 특성도 있다. 앞으로도 이같이 작은 영역을 큰 덩어리로 키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섬사랑꾼'이 되고 싶다.



흑산도 예리 섬 활동가

이영일 님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1. 고향인 흑산도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은 흑산도에서 지내고 있지만, 고향은 흑산면에 속한 장도(長島)다. 신안군청 수산계에서 공직자 지냈다. 본청과 흑산면, 비금면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픈 마음이 생겨나 흑산 홍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와 어선 운영을 주된 일로 삼게 됐다. 인생 전반에서 섬과 바다를 떼어놓고 말하기 어려운 게 학생 시절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른 무렵 스페인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잘 알려진 '라스팔마스'로 해외 실습을 다녀왔다. 세상 물정 모를 열아홉 나이에 바닷길 따라 나라 밖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만난 세상은 꼭 신세계와 같았다. 긴 여정 끝에 이르 섬에서 켜켜이 쌓은 기억들이 눈에 선하다. 요즘에도 SNS 계정에 글과 사진으로 추억담을 소개하곤 한다.

수산고등학교 실습과정에 이어 2등 항해사로 시작해서 1등 항해사까지 2년 1개월간 만기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목포해양대학교에 원서를 넣어 꾸준히 공부할 계획을 가진 내게 선장님은 좋은 점을 예로 들어 함께 배를 타자고 제안을 해왔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지만, 만약 대학교를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다. 고향에서 지내며 여행과 관련된 활동도 꽤 해왔다. 특히 체험 위주로 짜인 여행 프로그램을 20여 년 가까이 운영했다. 흑산면에 속한 장도는 2004년 환경부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 습지가 지닌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바 있는 곳이다. 장도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소라, 고둥을 잡거나 주민과 함께하는 갯바위 미역 채취, 통발 채취와 요트 체험 등이다. 이런 체험을 진행해보니 새삼 흑산도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자 매력 넘치는 섬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처럼 섬과 바다가 지닌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교류와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들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흑산신문'을 창간하는데 힘을 보태거나 '흑산도물랑길협동조합' 설립에도 참여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Q2. 흑산도에 관한 애착이 강한 듯한데, 앞으로 섬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을지?

몇 해 전 일이지만 신안군에 기초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사람마다 섬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고가 다르겠지만,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톡톡 던져보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라지만 최근에 이르러 세상인심이 점점 각박해지는 듯하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려면 주민들이 서로 융화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데, 바로 '문화'이다. 예를 들면 문학이나 음악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문화예술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이 향유한다면 좀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간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 외로움이 컸다. 하지만 누구나처럼 섬이나 육지 어느 곳이라도 고향을 두었다면 자신이 나고 자란 뿌리에 관한 소중함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평소 시간이 나면 곤잘 진도지역을 찾곤 하는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진도를 방문하면 주민들이 어딘가에 크게 구매받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흑산도 주민들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문화로 함께 어우러지길 바란다.

오늘의 주인공!


흑산도 예리 주민
박호님



Q3. 홍어 중 도매인이자 어업인으로 지내고 있는데, 지내는 소회를 밝힌다면?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홍어 포획량이 적어서 한 마리에 백만 원을 넘나들었다. 1997년 수산직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흑산면으로 발령받아 왔을 당시 홍어잡이 어선이 단 두 척뿐이었다. 생산성이 맞지 않아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어난 후였다. 그 후 자원 보존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제도를 따르면서 조업해 왔다. 그런데 홍어 개체 수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3, 4년 전 어구어법 개정으로 자망 어선들이 홍어를 남획하기에 이르러 흑산지역 어선들이 잡는 양보다 월등히 많아진 것이다. 군산 태안 지역은 물론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송도 위판장 등지로 홍어 위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조기잡이가 어려워지니 홍어잡이로 옮긴 탓이다. 공식적인 수산 어획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홍어들이 잡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홍어가 멸종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만 흑산 홍어만의 특별함이 있어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청정한 바다 환경에서 전통 어업 방식인 걸락 어법으로 잡아 맛과 찰기, 영양분 등 모든 면에서 좋다. 그래서 흑산도 홍어잡이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예전만 하더라도 숙성, 즉 삭힌 홍어를 찾는 고객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요즘은 장년층은 물론 젊은 청년들도 갯잡힌 싱싱한 홍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식문화에 따른 입맛이 변화한 것이다. 또 마리 단위가 아닌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으니 포장재나 값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착안해서 다양한 가격대로 홍어를 판매했더니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 부디 홍어에 관한 정통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수산 브랜드, '흑산홍어'가 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길 바란다.

Q4. 기후 위기로 해양 생태계에 극심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다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껴 쓰는 마음이 필요하다. 같은 자원이라도 땅 아래 매장된 광물이나 석유와 생물 자원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어느 정도 활용하더라도 개체 수를 보호 관리함과 동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고갈되고 만다. 그래서 수산물 남획은 우리 어민들이 지양해야 한다. 예전보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물코도 넓히고 자원 종자 연구로 증식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성체로 커나아야 할 많은 치어가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사례가 빈번하니 점점 고갈되는 현상 또한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민들이 각성해야 할 점은 어로 활동을 하고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대다수 어민들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업에 나서면 반면 일부 어민들에 의해 통발이나 그물과 같은 어구가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다. 언론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한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인력만으로 어구를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회수하다가 이내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폐어구를 서식지로 착각한 바다생물들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순히 환경 캠페인이나 이벤트로 그칠 게 아니라 스스로 쓴 어구를 꼭 되찾아 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안군 흑산도 투어 가이드

흑산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

항차	목포항 → 흑산도		흑산도 → 목포항		비고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50	09:50	11:10	13:00	도초도 경유
2	08:10	10:20	15:30	17:30	
3	12:30	14:30	15:50	17:40	
4	16:00	17:50	09:00(익일)	10:50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41-19

* **쾌속선 이용 문의(남해고속, 동양훼리)**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매표소 TEL 1666-0910
 흑산도항 매표소 남해고속 TEL 061-244-9915, 동양훼리 TEL 061-243-2111

* **운임** 성인 1인 37,500원

흑산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차도선)

항차	기항지	송공항 → 흑산도		송공항 → 목포항		비고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송공	06:30	-	-	17:30	송공항 (압해도)
2	도초	18:10	08:00	16:20	16:10	
3	흑산	-	10:10	14:00	-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공항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 **예리항**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41-19
차도선 이용 문의 뉴드림호(해진해운) TEL 061-279-4222 / 244-0803
운임 송공 ↔ 흑산 기준 성인 1명 22,300원(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등 불포함)
 *차량 선적료(승용차 편도 기준 75,000원) *매주 일요일 정기 휴항



흑산면 일반현황

행정구역 신안군 흑산면
 면적 19.7km²
 인구 2,247가구, 3,408명
 총 어선 척수 669척

흑산도 일주여행

구불구불한 해안 일주 도로를 돌아가면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서 있는 상라봉 전망대에 이른다. 이곳에서 서면 흑산도 전경과 함께 예리항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뒤돌아 서면 탁 트인 다도해를 배경으로 장도와 흥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흑산도 섬 여행 명소



하나 고래공원

흑산도 고래공원은 근대 시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섬 인근 바다에서 수많은 고래를 포획했던 역사성을 반영한 섬 명소 중 한 곳이다. 고래잡이로 유명한 동해·울산 지역과 그 이름을 함께 할 만큼 대표되는 데는 문헌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17년 목포신보사(木浦新報社)에서 발행한 『전남사 진지』에 무안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흑산도 예촌 포경근거지라는 문장이 표기된 사진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고래와 관련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예리에 2010년대 고래 형상을 띤 조형물이 설치됐다. 그 후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면서 잔디와 화초 등 다양한 식물로 조성하는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 흑산도 여행객과 주민을 위한 쉼터로 각광받게 됐다.

☞ 흑산면 예리1길 166



둘 흑산성당

신안 흑산성당은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먼바다에 속한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하여 낙후되었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사가 최근까지 이어져 지역 사회 안팎으로 종교·지역사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흑산성당은 섬에서 나는 돌을 활용해 석조 건축물로 지어진 특성을 지녀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올해 5월 4일 흑산성당 선교사의 집과 묵상의 집을 축복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선교사의 집과 묵상의 집은 총 10동으로 구성되어 섬과 흑산성당을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피정 연수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리에서 진리 중간 지점에하여 비교적 높은 지대에서 섬 북쪽으로 펼쳐진 긴 해안선과 주변 섬들을 관망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 흑산면 흑산일주로 180-20



셋 새공예박물관

새공예박물관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의 새와 관련된 다양한 목각, 공예품을 전시하는 문화예술 공간 중 한 곳이다. 진리마을에 있는 '신안철새전시관'과 같이 다도해 섬 지역에서 서식하거나 경유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흑산도의 동박새, 세계의 조류, 조류 공예품 등을 주제로 약 7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 박물관과 접한 바깥에는 아름다운 정원 곳곳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소나새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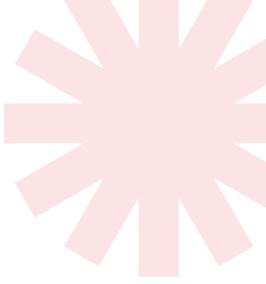
☞ 흑산면 흑산읍동길 38



넷 사리 칠형제바위

흑산도 사리 칠형제바위는 아름답기로 이름난 사리 바다와 관련된 마을 설화를 간직한 섬 여행 명소다. 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옛날 흑산도 사리마을에 아들 일곱 명을 둔 홀어머니가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섬으로 큰 태풍이 몰려왔다. 어머니는 날씨가 좋아지기를 학수고대하며 몇 날 며칠을 쉬다가 끝내 물질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더는 지켜보지 못한 칠형제가 바다에 들어가 두 팔 벌려 파도를 막았는데, 일곱 개의 작은 섬이 되었다고 한다. 흑산도는 먼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으로 해마다 큰 재해를 입곤 한다. 하지만 사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천혜의 요새와 같은 칠형제바위를 앞에 둔 덕분에 피해를 줄이는 특별함이 있다. 바다에 온기가 내려왔는 봄부터 옥빛처럼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기 좋아더없이 좋은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 흑산면 사리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특집 코너

2024
흑산면민의 날&
홍어축제
이모저모

흑산도 풍어제를 위해
화려한 풍어기를 달다



풍어와 안녕을 위해
뱃고사를 지내다





장도, 대둔도, 다물도에서
흑산도를 찾은 주민들

2024 흑산 홍어축제
"이모저모"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1

가고 싶은 섬 여수 송도 섬코디네이터 설명회 개최



2023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여수 송도에서 섬코디네이터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섬코디네이터'는 섬 방문객에게 섬 곳곳을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인력으로, 전남도에서 2017년부터 가고 싶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양성해 현재 약 50명의 섬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여수 송도 주민들은 설명회를 통해 섬 주민 마을해설가의 역할과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자격 취득 후 활동 등에 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전남도 섬발전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섬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전남도, 2024 섬코디네이터 통합 선진지견학 성료



지난 5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섬코디네이터와 과정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섬코디네이터 통합 선진지견학교육'이 진행됐다. 첫날은 섬코디네이터 이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한 후, 지속적인 섬관광을 위한 섬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모세 환(현 국가유산청 문화재활용사업 평가위원)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완도해양치유센터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다시마, 해수, 해초 등을 섬에 응용하는 체험을 했다. 둘째날은 명사십리해수욕장 및 완도타워방문을 통해 섬별 특산물 전시방안과 크라마키존 운영 등 효과적인 섬 홍보 안내방안 등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양일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섬코디네이터와 교육생들은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섬 자원발굴 및 활용을 통해 섬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따르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앞으로 섬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섬코디네이터는 섬 여행과 역사 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홍보 및 안내에 노력하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3

가고 싶은 섬 완도 소안도 지속관리 현장컨설팅



완도군에 속한 소안도는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섬이다. 지금은 주민들이 구성한 법인을 중심으로 가고 싶은 섬에 관한 운영·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5월 7일 사업추진 점검을 위해 미라펜션을 운영중인 마을 이장과 사무장, 소안항 카페 운영주민 등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미라펜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과 더불어 현장점검을 통한 시설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추진 완료 이후 소안항 카페 운영 현황과 운영 중 애로사항 등에 관해 면담하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섬발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가고 싶은 섬 소안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가꿔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 13일부터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완도 소안초등학교를 비롯한 미라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

제42회 삼산면민 축제 개최로 화합의 장 마련



2017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여수 손죽도는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섬이다. 지난 4월 9일 굿은 날씨 속에서도 손죽분교 운동장을 주요 무대로 삼산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제42회 삼산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는 삼산면체육회가 주관하여 '삼산면 구석구석 섬나들이 축제'라는 부제로 10개 마을 선수와 주민, 출향 인사와 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매년 4월부터 5월경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 초도, 손죽도에서 해당 축제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한마당 축제는 여수시립국악단 축하 공연을 비롯해 10개 마을 주민이 참여한 배구, 윷놀이, 여자 승부차기, 한궁 등 체육대회를 비롯해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주민 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앞으로 섬발전지원센터에서는 가고 싶은 섬을 비롯한 전남 유인섬 등으로 공간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